

퍼스트바이오, 글로벌 SAB 출범... 릴리 R&D 수장 출신 안 룬드베리 박사 합류

- 릴리·아스트라제네카서 30개 이상 의약품 FDA 승인 이끈 거물 주축... 세계적 자문력 확보
- 핵심 파이프라인 면역항암제 'FB849' 및 차세대 퇴행성신경질환 연구 탄력



<안 룬드베리(Jan Lundberg) 박사>

주식회사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이하 퍼스트바이오, 대표이사 김재은)가 글로벌 빅파마 연구개발(R&D) 수장 출신 안 룬드베리(Jan Lundberg, M.D., Ph.D.) 박사를 비롯한 해외 신약개발 전문가들을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 SAB)에 영입하며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 자문 체계를 구축했다. 회사는 이번 SAB 출범을 통해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면역항암제 'FB849'의 개발 전략 고도화와 차세대 파이프라인 연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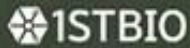
안 룬드베리 박사는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와 일라이 릴리(Eli Lilly)에서 글로벌 R&D 총괄 부사장을 역임하며 25년 이상 혁신신약 연구개발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당뇨병 치료제 ‘트루리티티’와 ‘마운자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순라’ 등 30개 이상의 FDA 승인 의약품 개발에 관여했으며, 250개 이상의 임상 후보물질 발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룬드베리 박사는 퍼스트바이오의 차세대 퇴행성신경질환 파이프라인 연구에 전략적 방향성을 더할 전망이다.

제퍼리 듀익(Geoffrey Duyk, M.D., Ph.D.) 박사는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서 연구개발과 투자, 경영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다. 그는 밀레니엄 파마슈티컬스(Millennium Pharmaceuticals)의 창립멤버로 부사장을 지냈으며, 엑셀릭시스(Exelixis)에서 R&D 총괄 사장을 역임하며 이사회에도 활동했다. 또한 TPG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투자사에서 매니징 파트너를 거쳤다. 퍼스트바이오 초기부터 자문을 이어온 듀익 박사는 풍부한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학 자문은 물론 사업화 전략에도 힘을 보탠다.

항암제 임상개발 전문가인 리일라 앨런드(Leila Alland, M.D.) 박사도 SAB에 합류했다. 앨런드 박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비엠에스(BMS), 노바티스(Novartis) 등에서 타그리소, 옴디보의 글로벌 개발 및 승인 과정에 참여한 바 있으며, 퍼스트바이오의 최고과학책임자(CMO)를 역임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면역항암제 ‘FB849’의 전략 수립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다.

표적 단백질 분해(TPD) 신약개발 전문기업 아비나스(Arvinas)에서 초기 신약합성(Discovery Chemistry) 부문 부사장을 지낸 로렌스 스나이더(Lawrence Snyder, Ph.D.) 박사는 30년 이상 합성신약 연구를 수행해온 디스커버리 화학 전문가다. 다수의 TPD 기반 분해제를 임상 단계로 진입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퍼스트바이오 TPD 플랫폼의 의약화학 부문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

김재은 퍼스트바이오 대표는 “자문위원들의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면역항암제 ‘FB849’의 임상 성공률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파이프라인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개발(BD) 성과도 빠르게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과학자문위원회 (Scientific Advisory board)



얀 룬드베리
Jan Lundberg M.D., Ph.D.

- 트루리티티, 마운자코, 키순라 등 30개 이상 FDA 승인 주도
- 前 일라이 릴리 연구소 사장 및 R&D 총괄
- 前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디스커버리 연구 총괄
- 前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교수

제퍼리 듀익
Geoffrey Duyk, M.D., Ph.D.

- 연구-경영-투자 경험 두루 갖춘 바이오테크 산업 베테랑
- 前 일레니엄 파마슈티컬스 부사장
- 前 액셀릭시스 R&D 총괄사장
- 前 TPG 바이오테크놀로지, 서클러리스 파트너스 매니징 파트너

리일라 앨런드
Leila Alland, M.D.

- 항암제 임상개발 전문가
- 前 아스트라제네카, BMS, 노바티스 글로벌 개발 및 승인 참여 (타그리스, 옵디보, 타시그나 등)
- 前 PMV, Affimed, Tarveda 최고과학책임자(CMO)
- 前 퍼스트바이오 CMO

로렌스 스나이더
Lawrence Snyder, Ph. D.

- 30년 경력의 의학화학 전문가
- 前 아비나스 초기신약합성 부문 부사장, TPD 기반 분해제 임상 단계 진입 주도 (바브데갈루타이드 등)
- 前 BMS 수석연구자, C형 간염 치료제 다클렌자 개발 주도

<퍼스트바이오 과학자문위원회>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퍼스트바이오는 2016년 설립되어 퇴행성 뇌질환, 면역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선도적 바이오텍으로 성장해왔다. 면역항암제 ‘FB849’는 2023년 미국에서 첫 환자 투약을 시작으로 임상 1/2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국내 임상도 병행중이다. 병용 투여 임상시험을 위하여 MSD로부터 PD-1 항체 ‘키트루다(KEYTRUDA®, pembrolizumab)’의 무상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파킨슨병 치료제 ‘FB-101’은 c-Abl 저해제로, 미국에서 임상 1상 단일용량상승시험(SAD)을 완료했다.